

7월27일(월)/누가복음9:28-36

제목: 은혜 받을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하면서.(29절) 구약의 두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대화의 내용은 십자가와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31절) 이 때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버렸다.(32절) 그들의 대화소리와 예수님에게서 발산되는 광채 때문에 잠에서 깨어 버렸다. 그리고 구름이 와서 저희들을 덮었고(34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35절) 참으로 황홀한 광경이었다. 이 때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하여서 느닷없이 세계의 초막을 짓자고 제안하였다. 성경은 베드로의 이 말을 생각없이 내 뱉은 말로 못 박았다.(33절) 황홀에 취해서 흥분하여 내뱉은 쓸데없는 말이었다. 교회 안에도 은혜에 도취되어서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내뱉는 무익한 주장들이 많다. 은혜에 너무나 취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주장하는 무리한 소리들이 많다. 은혜 받았다고, 열정이 넘친다고 무조건 치고 나가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다. 은혜와 열정이 넘칠수록 목회자와 대화하고 교회의 정서를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7월28일(화)/누가복음9:37-45

제목: 십자가만 아시는 예수님

귀신들려 발작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다(38절)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꾸짖자 단숨에 그것들은 아이에서 떠났다.(42절)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이히 여겼다. 무리들이 예수를 칭송하고 환호하는 그 순간에 (43절) 예수님은 독특한 한 설교로 그 상황을 정리하셨다. 그 설교는 장차 자기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44절) 그는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는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려는 그 순간에도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셨다. 그는 십자가 밖에 모르는 분이셨다. 그는 모든 일을 십자가와 연관시켰었다. 교회도 이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야 한다. 교회의 모든 일은 십자가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 예배도, 봉사도, 구제도, 교육도. 선교도. 친교도 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 교회가 목사의 이름을 알리는데 정열을 쏟는다든지,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제와 봉사를 강행한다든지, 십자가가 빠진 교양강좌로 인기를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위배된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봉사도 십자가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

7월29일(수)/누가복음9:46-48

제목: 연약해야 삽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날 때(46절)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자기 옆에 세우셨다.(47절) 어린이는 유대 사회에서 인구 계수에 들지 못하는 부류였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곁에 가까이 하신 일 그 자체는 예수님의 좌. 우편을 먼저 차지하려는 제자들의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것은 서열이나 계급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닌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장차 자기 좌. 우편에 서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였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와 동급으로 보셨다.(48절) 왜 그는 어린이를 이처럼 귀히 보시는 걸까? 그들의 순진성 때문인가? 아이들도 과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 핏고고 싸우는 이기심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귀하게 본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연약성’ 이다.. 어린이는 본질상 연약하다.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그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 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약해지는 것이다.

7월30일(목)/누가복음9:49-50

제목: 장로교도 감리교도 다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을 보였다. 요한은 그들이 못마땅했다. 요한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즉,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는 일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49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답하셨다.(50절) 이 부류가 누군지 자세히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도 제자로 용납하셨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권이 아닐 텐데, 이미 제자들 사이에 집단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열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많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즉 이단만 아니면 다 예수님 편이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예장도, 기장도, 성결교도 다 예수님의 편이다.

7월31일(금)/누가복음9:51-56

제목: 신학적 논쟁은 피하십시오

예수님과 일행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할 때(52절)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 종교적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배척하였다.(53절)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는 신앙적 신학적 견해 차이로 약 일세기동안 다툼이 있었다. 자신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천벌을 내려 그 마을 소멸시키자 하였다.(54절)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길로 우회하셨다.(56절) 예수님은 그 마을에 천벌을 내리거나, 사마리아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시고 우회하셨다. 우리도 우리와 신학적 신앙적 견해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 종종 만난다. 그 때는 논쟁을 피하고 우회하는 것이 좋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마틴 루터, 쾰빙글리는 성만찬 교리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극한 대립과 논쟁은 피하고 각자의 노선을 걸어갔고 거기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꽃 피웠다. 이단 이든, 빼앗어진 신앙을 가진 자든, 그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다. 논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냥 우회하는 것이 상책이다. 단 그들을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